

제18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

“하루 빨리尹 탄핵”...성난 광주 민심 절정

광주비상행동·민변, 검찰 항고 포기·석방 방조 비판 시민 1000여명 결연한 의지...“촛불, 멈추지 않을 것”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맞이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민심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1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전날 15일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8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를 개최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과 대학생 등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추위가 풀리지 않은 탓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광주 시민들은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집회 내내 시민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홍현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단상에 올라 즉각 항

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을 방조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권력자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내란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검찰의 항고 포기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광주시민들 손에 든 촛불과 피켓, 그리고 목청 높여 외치는 구호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광주시민임정임씨(63·여)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며 31년간 싸워온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발언을 이어갔다.

임씨는 “우리가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평등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다섯 번의 삭발, 단식, 오체투지, 삼보일배까지 하며 저항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대학생의 발언에 또래 청년들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제18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내란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 함성을 질렀고 증장년층 시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집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광주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찬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1980년 5월의 광주와 2025년의 광주를 하나로 이어졌다.

광주비상행동은 시민들의 끝없는 연대의 투쟁을 강조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우리는 1980년 5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이다”라며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광주의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12·3 계엄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광주시민총결기대회를 열다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지난 10일부터 매일 철야 집회를 열어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비상행동의 철야능성과 더불어

5·18민주광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주중에는 각계 시민단체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1400여명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심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SOCIETY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6:41 달출 21:32
예결 18:42 달림 07:49



광주	☀️	0~8
목포	☀️	2~6
여수	☀️	1~9
순천	☀️	-1~9
구례	☀️	-2~8
광주	☀️	1~8
임도	☀️	1~9
흑산도	☀️	3~8
고흥	☀️	-1~9
진도	☀️	2~8

목포	밀물(고)	03:58 / 16:03
	썰물(저)	09:08 / 21:18
여수	밀물(고)	10:44 / 23:04
	썰물(저)	04:36 / 16:39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여수 공무원 경찰 수사

여수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수시 공무원 16명을 공판정기 기록 위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2022~2023년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4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전자기록 위자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어 공직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 판결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당면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여수시청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례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명이었던 적발 인원이 2023년에는 15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명이 적발됐다. 여수=송원근 기자 svng3318@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단 검거

사기 일당 총 41명...보험금 8억1500만원 수령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범으로 역대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16일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광주·전남 등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끌고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보험사기방장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은 8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동네 선주배 사이로 고가의 외제차 등 총 29대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후 자동차 단기보험에 가입해 유효 기간 내 1~3회에 걸쳐 고의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험 유효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폐차하고, 수령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구매 경위와 계좌 거래내역 분석,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 수법과 공모 관계 등에 대한 피의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대규모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의 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구례서 빙판길 고립된 버스 구조...인명피해 없어

구례군 일원을 지나던 관광버스가 빙판길에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16일 구례군과 구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1분 성삼재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길이 미끄러워 관광버스가 못 움직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광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엄화갑습 등을 투입, 현장 세설에 나선 소방당국은 관광버스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광버스가 고립됐던 구간은 지대가 높고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상승통제지역’으로 이날 오전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에도 구례에는 3.2cm의 눈이 내리면서 한 때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구례=전정채 기자 dong-eah@gwangnam.co.kr

주택용 화재경보기, 대형화재 참사 막았다

광주 서부소방,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효과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 서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36분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룸 1층 세대에서 시작된 불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다.

연기를 들이마신 5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서부소방은 화재 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이 울리고 있어 거주자와 이웃 세대에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면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이 난 세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지난 2022년 서부소방에서 주택 화재 저감을 위해 추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당시 해당 세대에 보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선 기자 yo1404@gwangnam.co.kr

70대 운전자 상가건물 돌진

만년필 ○...광주 도심에서 SUV 차량이 보행자와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

16일 광주 동부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조사 중인 A씨(76)는 지난 15일 오전 11시9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어.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인 1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상가 건물로 돌진. 이 사고로 A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속도가 제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송태영 기자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대로 173 대연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